

■ 한국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 성 형¹⁾

1. 서론

사회과학계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4대 강국 중심의 연구 풍토에서 제3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오랫동안 ‘정치(또는 사회)발전론’, ‘제3세계정치(또는 사회)론’, ‘정치(또는 사회)변동론’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주로 근대화론, 종속이론, 권위주의와 민주화 이행론 등의 이론 틀 속에서 채워졌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본격적인 탐구는 대체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관련 지역연구자들이 충원되면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선구적 연구자들이 주도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지역연구자들이 충원된 1990년대부터 개화기가 열렸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전,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본격적 지역연구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²⁾

- 1) 이 글은 학술대회 <2009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3월 27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것이다.
- 2) 이런 분류는 신윤환·이성형의 논문(1996)에서 시도된 것으로, 이 글도 이 분류를 따랐다. 한국 지역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과 비평으로는 김영명·권용립·

이 글에서 ‘지역연구자’라 함은 “특정 학문분과가 요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분석능력과 전공지역 또는 국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현지조사 연구능력을 겸비한 자”(신윤환, 이성형 1996: 159)로 정의한다. 따라서 지역연구자는 현지체험, 언어능력, 분과 학문, 역사에 대한 관심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초기의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현지조사 경험이 부족하거나, 2차문헌에 의존하는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과거를 회고하고 향후 과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글이다. 필자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단행본들을 중심으로 리뷰를 하고 시기별 발전과정, 특징,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개방적 통상국가로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당면의 과제라면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이런 심화된 지역연구 풍토를 만들려면 지역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론적 방법론적 모색, 연구자의 재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³⁾

2. 해방~1980년대: 제1세대의 소개와 이론 도입기

한국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땅’(terra incognita)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참전을

신동호(1987), 이상섭·권태환(1998), 박사명(1999), 전성홍(2002), 이성형·송주명(2005) 등을 꼽을 수 있다.

3) 지역연구의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영명·권용립·신동호(1987), 신윤환·이성형(1996), 이상섭·권태환 편(1998), 전성홍(2002), 이성형·송주명(2005) 등을 들 수 있다.

하였고, 또 수출입국을 내건 제3공화국 정부 아래 유망한 시장이 나 이민의 송출지로서 관심을 끌었지만, 그것이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후의 냉전 질서 속에서 우리의 학문적 관심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 제한되어 있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학에서 제3세계에 관한 강좌는 극히 제한되었고, 게다가 시선이 구체적으로 ‘중남미정치와 사회’로 좁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종속이론에 대한 관심, 민주화 이행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역에 뿌리를 둔 연구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로 이론의 소개에 치중하였다.

아마도 1970년대부터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와 교육이 이뤄진 곳은 한국외대의 중남미연구소(1974년 창립)와 스페인어과가 유일한 예외였다고 생각한다. 중남미연구소는 당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중남미문제연구》라는 잡지 형식으로 발간하였고, 그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1970년대 초기부터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로 한국외대에서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를 가르쳤고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민만식 교수, 그리고 국방대학원에서 중남미와 국제정치를 가르쳤던 권문술 교수를 들 수 있다. 민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박사논문을 제출하고, 이를 단행본 『중남미 정치론 - 국제관계를 중심으로』(일조각, 1974)에 출간하였다. 이미 3년 전에 중남미를 소개하는 『중남미의 정치와 경제』(일조각, 1971)을 펴낸 바 있었다. 두 권의 저서는 당시 입문서로 학생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널리 읽힌 바 있다. 민교수는 권문술 교수와 더불어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정치적 상황과 국제관계』(탐구당, 1985)를 출간하기도 했다. 두 분 교수는 주로 중남미의 정치변동, 외교 관계에 여러 편의 논문과 잡지 기고문을 남겼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에서 중남미 지역연구 분야를 가르쳤던 강석영 교수도 초기 제1세대에 속한다. 강 교수는 ‘중남미 석유자원 국유화의 비교연구: 볼리비아, 멕시코, 페루의 사례를 중심으로’(1983)를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애초 연구 분야인 자원민족주의에서 이민 문제, 나아가 역사 관련 분야로 관심을 넓혀서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만 해도 『중남미 이민과 민족주의』(명지출판사, 1986), 『라틴 아메리카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중남미 사회와 테러리즘』(한국외대출판부, 2005),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한국외대출판부, 2005), 『칠레사』(한국외대출판부, 2003) 등을 들 수 있다. 강 교수는 정치학적 지역연구의 주제를 사회와 역사 분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1세대 연구자들과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1세대 연구자들의 한계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입문서 집필에 용이한 주제의 선정이 눈에 띈다. 둘째,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주로 2차 문헌에 의존한 글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내 학계에서 축적된 정보와 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세련된 논의 전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직 중남미 지역연구 분야에서 본격적인 이론적 토론이나 방법론적 세련화를 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서술적이며, 정보 제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 일각에서는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아이러니지만 그것은 종속이론, 해방신학, 국가이론, 관료적 권위주의론 등과 같은 중남미 사회이론과 비판이론에 대한 뜨거운 관심 때문이었다. 당시 서구 사회나 중남미 사회에서 근대화론에 대한 반성,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민주화 이행에 대한 논란, 외채위기와 대안 모색을 둘러싼 논의 등이

일어났고, 우리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소개와 비평이 줄을 이었다.

특히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민주화 이행론이 사회학자인 한상진 교수 등에 의해 소개되었고, 이 이론의 한국에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한상진, 강민, 이정복, 이국영 교수 등이 참여한 열띤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우리 사회도 민주화 이행 국면에 있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중남미 정치와 민주화에 대한 연구서, 비평서, 비교분석 연구가 다수 출간되기도 했다. 관료적 권위주의론의 소개와 한국에의 적용 논란이 곧 바로 구체적인 지역연구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의 연구자들에게 큰 지적 자극을 주었음에는 틀림없다.

3. 1990년대: 제2세대의 지역연구 정초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남미 지역연구는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 일취월장을 한다. 무엇보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1993~1998)의 세계화 드라이브로 인해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커졌다. 이와 더불어 1989년에 서울대에서 ‘스페인·중남미 연구소’(현재 ‘라틴아메리카연구소’로 개칭)가, 1997년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가 창설되어 연구공간의 다원화를 이루었다.

연구 분위기의 쇄신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에 미국, 스페인, 중남미,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남미정치 연구자 다수가 학계에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에는 대부분 시간강사의 지위에 있었지만, 현장연구와 비교연구 그리고 현지에 대한 습득으로 인해 지역연구자로서 정체성이 강한 일련의

비교정치학자들은 1993년도 즈음에 스스로 ‘중남미정치연구회’를 결성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월례 발표회 모임을 가졌다. 이 당시 자주 나온 회원들로는 당시 학위를 받고 1990년대 초에 학계에 진입했던 임혁백, 홍욱헌, 백종국, 이영조, 서병훈, 이내영, 정진영, 김병국, 이성형 등이 있었고, 사회학자로 임현진 교수도 자주 참석하였다. 이 가운데 멕시코 연구자가 4인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연구자가 2인, 베네수엘라 연구자 1인, 칠레 연구자 1인 등이 참석하였다. 이 연구회는 1년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당시 한국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의 요청으로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학회의 내실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중반기에는 칠레 정치 전공자 곽재성(경희대), 멕시코 전공자 임상래(부산외대), 김기현(선문대) 등이 학회에 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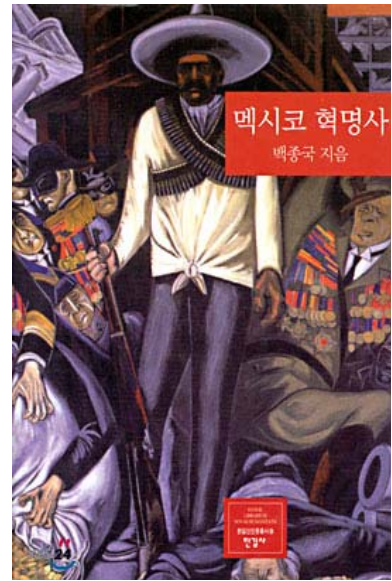
학회지 《라틴아메리카연구》의 1995년 특집호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은 정치학자 6명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니카라과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개혁의 현단계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1996년 특집호에서는 ‘멕시코의 경제개혁과 정치변동’을, 1997년 특집호에서는 ‘현대 브라질’을 심도있게 다루어 당시 중남미 지역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 시기부터 학회는 외국인 학자(중남미와 미국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방면에 물꼬를 틔운 것이 김영삼 대통령 순방 이후에 이뤄진 한-남미 순회 국제학술대회(1997년 10월)였다.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학회 대표 3명이 참여하여 해당국 학자들과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인 것이 학회 국제화 사업의 첫 경험이었다. 이후부터 학회지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외국인의 기고를 받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

기도 했다.

1990년대에 중남미 지역연구 분야에 출판물도 많이 출간되었다. 대학교재용으로 편집된 김병국, 서병훈, 임현진 편 의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1991)을 위시하여, 송기도, 강준만의 『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1996)가 출간되어 입문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였다. 로날도 문크의 대표적인 저작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학』(1991)도 강문구, 김형수 두 분의 번역으로 출간되어 교과서와 부교재로 많이 이용되었다.

단행본 저술로는 박사학위논문을 묶은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1990), 김병국의 『분단과 혁명의 동학』(1994) 등이 출간되었다. 서병훈 교수는 칠레 인민연합의 사회주의 실험을 다룬 평가서 『다시 시작하는 혁명』(1991)을 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치학자들에게 의한 역사 해설서도 많이 출간되었는데, 그 가운데 강문구의 『포위된 혁명: 니카라과 혁명 10년사의 현대적 조명』(1993), 강석영의 『라틴아메리카사』(1996), 민만식(외)의 『중남미사』(1993), 백종국의 『멕시코혁명사』(2000) 등이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백교수의 『멕시코혁명사』는 다른 저술과 달리 상당한 공을 들인 노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 이성형이 쓴 『IMF 시대의 멕시코』(1997),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



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1998) 두 권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민만식, 서병훈, 정진영, 김병국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서 『사회주의 실험: 쿠바와 니카라과』(1992)는 사회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민사항을 담아내어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시기 정치학자들의 연구의 특징을 보면 이전 시기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한국 사례와 중남미 국가 사례를 비교하는 비교분석 연구가 다수 출현하였다. 주로 멕시코와 브라질의 민주화와 경제개혁, 자동차 산업, 금융개방, 토지개혁 등을 한국 사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교훈을 찾아내는 비교정치 내지 비교정치경제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사례연구과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비교정치학계에 상당한 지적 자극을 주었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 연구비 수혜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논문과 저술의 양도 크게 늘어났다. 셋째, 중남미 정치 전공자들의 연구 활동 범위가 라틴아메리카 학회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학문과의 대화도 활발히 이뤄졌고, 학문간 내지 학제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는 지역연구의 심화를 위해 바람직한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다수 속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교로 진입한 많은 정치학 연구자들은 이전과 달리 중남미 지역에 대해 천착할 기회와 시간을 빼앗기고, 동아시아나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수 생겼다. 대부분의 정치외교학과에서 중남미정치(론)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정치발전론, 정치변동론, 제3세계정치론의 일부분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충원된 교수는 강의와 연구의 불일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제3세계를 연구하면 마치 주변부 학자군인 것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의 상이한 기회구조와 기형성도 연구자들을 중남미 연구에서 이탈하

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4. 2000년대: 제3세대의 심화된 연구를 꿈꾸며

2000년대 들어와서 중남미 정치 분야 연구에 생긴 새로운 움직임은 주제의 다원화 현상이다. 이제 정치 분야 연구도 선거와 정당, 민주화와 공고화, 경제개혁 등에서 사회운동, 여성문제, 사회정책, 연금개혁, 탈영토화, 이민문제, 외교정책, 정체성의 정치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주제의 다원화는 부분적으로 여성 연구자의 학계 진입, 학회 차원의 협동연구, 학술진흥재단의 지역연구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묶여서 지난 2~3년간 많은 논문들과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그 중에 2000년대 들어와서 학회가 주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조직한 신자유주의 3부작이 단연 눈에 띈다. 이 작업은 모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뤄져 처음으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김종섭, 이내영, 조돈문이 편자로 참여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2005), 이남섭, 이내영, 조돈문이 편집한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이내영, 임상래, 조돈문이 편집한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2005) 세 권은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로 바로 공동연구의 결과물들이다. 이 연구서는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문화연구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지난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⁴⁾ 학회가 주도한 학제 연구로서 선구적인 기회였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의 주제의 무게나 내용에 걸맞

4) 이에 대한 주제서평으로는 이성형(2005)를 참조하시오.

은 유기적 구성은 아니어서 다소 아쉬움은 남는다. 이는 현 단계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 3부작은 우리 학계의 의제설정 능력이 국제 학계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점도 많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중남미 정치 분야의 고유한 연구들도 많이 생산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에 대해서는 김기현과 홍욱현의 대표적인 연구가 있고, 브라질 노동정치에 관해서는 오삼교 교수와 신중현 교수의 많은 논문들이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제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인권과 과거사 청산의 정치에 대해서는 계간지 《기억과 전망》의 2004년호 특집호 ‘중남미 국가의 민주화 이행과정과 과제’에서 심도있게 다루지고 있다. 민주화 이행 패러다임에서 인권 정치로의 관심이 옮겨간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며, 각국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깊이 있는 논문이 생산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여성 연구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순주 교수는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과 여성정책』(2003)도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강경희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멕시코 다국적기업』(2003)을 출간하여 제3세계 다국적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였다. 정치사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서병훈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정치와 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포퓰리즘』(2008)에 대한 좋은 연구서를 내었다.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중남미의 경제정책과 한-중남미 경제협력에 큰 기여를 한 김원호 교수의 정책연구서들도 다수 출간되었다. 조성권 교수는 콜롬비아 마약연구로 출발하여 이제 국내의 마약 문제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단행본도 대거 늘었는데, 주로 학생들이



쉽게 중남미에 접근할 수 있는 역사서, 개설서, 리더십 연구 등이 많다. 강석영 교수의 다작이 돋보인다. 강교수는 2003년에 『칠레사』를, 2005년에 『중남미 사회와 테러리즘』,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를, 2007년에 『중남미 자원민족주의』를, 2008년에 『현대 스페인』을 펴냈다. 백종국 교수도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와 리더십』을 2003년에 출간하였고, 김원호 교수는 이미숙 기자와 더불어 『남미가 확 보인다』(2001)란 르포집을 내어 강의의 교재와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광재성, 우석균 교수는 대중적인 입문서인 『라틴아메리카를 찾아서』(2000)를 출간하였고, 이성형은 중남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교양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와 사상』(편저, 2000), 『라틴 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2002),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라틴아메리카 문화기행』(2001),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2003)을 낸 바 있다. 이외에도 오랜 외교관 생활의 경험이 녹아있는 입문서 『중남미개관』(2005)을 낸 김홍수, 심국웅 두 전직 외교관의 저작도 눈에 띈다.

해외의 뛰어난 연구서나 저작물이 번역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어, 학계 연구와 교육에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노르마 친치야 등이 쓴,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 21세기에 대세를 전환하다』(2008), 니콜라스 밀러 등이 쓴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성찰』(2008), 에밀리오 A. 누



네스가 쓴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와 희망』(2004) 등은 한국의 중남미 연구의 공백을 메워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 자극제의 구실을 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외관계가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다각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심화된 세계화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와의 정치, 경제, 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이미 중남미 대륙은 우리 무역구조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칠레와 FTA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도 FTA 협정을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사 청산, 인권정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연금개혁, 사회정책, 민영화 실험 등), 에너지와 그린 성장 등의 경험 등은 우리의 좌표 설정에도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이런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다. 현 단계 정치학 분야의 중남미 지역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할까?

1990년대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일거에 증가한 데 비해 2000년대에 와서 젊은 연구자의 수혈은 극히 제한적이다. 해외와 국

내에서 공급되는 연구자 수는 현저하게 줄었다. 이는 연구자를 충원하는 학교나 연구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연구자들이 중남미 연구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비교연구를 통해 중남미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의 중남미 논문 생산도 현저하게 줄었다. 새로운 연구자 층을 발굴하고, 충원해도 시원찮은데, 수혈된 피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 아직도 중남미 정치와 정치경제는 한국의 정치외교학과 교과목에서 대부분 빠져 있다. 석사과정에서 정치학 분야 논문이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곳은 한국외대 정도에 불과하다. 4강 중심의 교과목에서 현 단계의 세계화 수준을 반영하는 교과목으로 개편이 있어야겠고, 또 학계 인사들 스스로 자각하여 비교정치의 실험장인 중남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맺으면서

정치학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연구사를 일별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1990년대에 미국, 중남미 등지에서 훈련을 받은 지역연구자들이 대거 충원되었고, 학계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요, 연구 환경, 충원의 기회 등은 4대 강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연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여러 대학교에서 연구소를 개설하고 학술지를 창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 환경의 개선과 제도화, 국제화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단행본과 논문 생산도 연구자 풀의 규모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문제점도 눈에 띈다. 첫째, 외국어로 된 논문과 연구서

발간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한국에서 발신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여전히 우리나라 라틴아메리카 연구는 수신 위주이다. 지역연구가 현지어, 영어, 전공영역에 대한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수도 있다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지역연구의 국제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둘째, 여전히 국내의 라틴아메리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초보적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원한 국제대학원 프로그램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이 광범한 분야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지역연구 분야는 크게 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HK 사업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연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충원된 능력을 지닌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면서 연구의 공백이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다. 학계에 충원되는 연구자 수도 최근에 들어와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향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지역연구는 비교정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결국 비교할 내용(facticity)을 구성하는 것은 지역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연구자와 비교정치 연구자는 건전한 경쟁관계와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훌륭한 지역연구자가 많다면 비교정치 연구도 질적으로 나아질 것이고, 문제설정 능력도 뛰어날 것이다. 개별기술 능력을 중시하는 지역연구는 법칙 및 규칙 정립적인 비교연구에 좋은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자도 될 수 있다(이성형·송주명 2005: 471). 그런 점에서 정치학 분야에 지역연구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지역연구 일반

- 김영명 · 권용립 · 신동호. 1987.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21(2).
- 노명준. 1974. 「서평. 민만식 저. 중남미정치론 -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1974. 일조각)」. 《국제정치논총》 13(1).
- 박사명. 1999. 「보편성과 특수성: 정치학적 지역연구의 문제의식」. 《한국정치학회보》 33(1)
- 신윤환. 1998.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와 지역연구: 비판적 검토」. 이상섭 ·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윤환 · 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 이성형. 200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미래는 있는가?」. 『역사학보』 제187권.
- 이성형 · 송주명. 2005. 「지역연구」. 김세균 · 박찬욱 · 백창재 편.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박영사.
- 전성흥. 2002.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8(2).

2. 라틴아메리카 참고문헌

1) 해방~1980년대

- 민만식. 1971. 『중남미의 정치와 경제』. 일조각.
- _____. 1974. 『중남미 정치론』. 일조각.
- 민만식 · 권문술. 1985. 『전환기의 라틴 아메리카』. 탐구당.
- 강석영. 1986. 『중남미 이민과 민족주의』. 명지출판사.

2) 1990년대

- 강문구. 1993. 『포위된 혁명: 니카라과 혁명 10년사의 현대적 조명』. 나라사랑.

- 강석영. 1996. 『라틴아메리카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병국. 1994. 『분단과 혁명의 동학: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문학과 지성사.
- 김병국·임현진·서병훈 편. 1991. 『라틴 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나남.
- 강준만·송기도. 1996. 『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 개마고원.
- 문크, 로날도. 1991.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학』. 강문구·김형수 역. 한울.
- 민만식 외. 1993. 『중남미사』. 민음사.
- 서병훈. 1991. 『다시 시작하는 혁명』. 나남.
- 이성형. 1990.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까치.
- _____. 1997. 『IMF 시대의 멕시코』. 서울대출판부.
- _____. 1998.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 임상래 외. 1998. 『중남미 사회와 문화』. 부산외국어대출판부.

3) 2000년대

- 강경희. 2003. 『신자유주의와 멕시코 다국적기업』. 오름.
- 강석영. 2003. 『칠레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_____. 2005a. 『중남미 사회와 테러리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_____. 2005b. 『중남미 정치와 국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원호·이미숙. 2001. 『남미가 확 보인다: 희망의 대륙을 절망의 대지로 만든 남미병 실체 벗기기』. 학민사.
- 김종섭·이내영·조돈문(편). 200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오름.
- 김홍수·심국웅. 2005. 『중남미개관』. 선문대학교출판부.
- 곽재성·우석균. 2000. 『라틴아메리카를 찾아서』. 민음사.
- 누네스 외. 2004.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와 희망』. 기독교문서선교회.
- 밀러 등. 2008.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그린북.
- 백종국. 2000.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 _____. 2003. 『라틴아메리카 현대사와 리더십』.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송기도. 2003.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 중남미의 재발견』. 개마고원.
- 서병훈. 2008. 『민중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 이남섭 · 이내영 · 조돈문(편). 2005.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오름.
- 이내영 · 임상래 · 조돈문(편). 2005. 『세계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이주와 이민』. 오름.
- 이성형. 2002. 『라틴 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역사비평사.
- _____. 2001.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 _____. 2003.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까치.
- _____. 편. 2000. 『라틴 아메리카 역사와 사상』. 까치.
- _____. 2009.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벽화, 국민음악, 축구를 통해본 정체성의 정치』. 길.
- 이순주. 2003.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세종출판사.
- 친치야 등. 2008.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 21세기에 대세를 전환하다』. 모티브북.

이성형 -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